

항만부지 불법사용자 5명 입건

속초해경, 항만시설사용자·무역업체 대표 불법 임대차 적발... 유사 행위 수사 확대

국유재산인 항만부지를 불법으로 민간업체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챙긴 항만시설사용자와 불법 임차한 무역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속초 동명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항만지원센터 내 국유재산인 항만부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항만시설사용자와 무역업체 대표

등 5명을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항만시설사용자 A씨(58세, 속초 교동)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유재산인 항만부지를 불법으로 무역업체에 임대해주고 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무역업체는 관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부지에 가설 건

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사무실로 사용해온 혐의다.

속초해경은 이들이 조사과정에서 불법인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이처럼 국유재산인 항만부지 및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광호 기자

구타 없는 활기찬 병영 만들기

속초해경 전투경찰순경 워크숍 개최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신세대 장병들의 즐겁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위한 전경 워크숍을 개최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신세대 장병들의 즐겁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위한 전경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상과 육상에서 근무하는 전투경찰순경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자체사고 제로(Zero) 결의대회에 이어 지휘관과 전경이 함께하는 점취와 대화, 전경 한마음체육대회 등이 진행됐다.

속초해경은 이날 전경 워크숍을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비인격적인 행위를 차단하고, 지휘관의 전경에 대한 관심도 표명을 통해 활기찬 병영생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속초해경은 매월 전경들의 사기진작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경 합동 생일잔치, 서장과의 지장면DAY, 전경없는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가족과 사회에 헌신하는 노인상 정립

대한노인회 고성군지부 2011년 정기총회 개최

“역사의 주체로 가족과 사회에 헌신과 봉사로 책임지는 새로운 노인 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회장 김완식)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고성군 문화의집 3층 대강당에서 기관단체장과 대의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2010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 결산보고 승인,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완식 노인회장은 이 자리에서 “고성군은 1만 노인시대가 도래되고 있어 법률과 제도 및 정책이 정비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노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40년만에 염원했던 소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는 지난달 28일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인 노인회 지원법이 통과되었다”며 “앞으로도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 리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잘 돌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이다.

단체상 회원영입 부문 토성면 분회, 회원 단합과 경로당 활성화에 힘써온 공로로 신안리 통합 경로당이 수상했다.

이어 개인부문 표창장에는 거진 11리 경로당의 임대식 어르신이 수상했다. 박승근 기자

박광근 자유총연맹 고성지회장 별세



고 박광근 고성군지회장 영결식을 지난 1일 오전 10시 간성읍사무소 광장에서 가족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

박광근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5시2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7세

고인은 지난 55년 고성군 간성에서 출생해 고성고를 졸업했으며, 지난 2007년부터 자유총연맹 고성군지회장을 맡아왔다. 재직 시절인 2010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길순여사와 아들 박지환(육군 하사), 딸 지선·지에·지숙씨가 있다.

고 박광근 고성군지회장 영결식을 지난 1일 오전 10시 간성읍사무소 광장에서 가족 및 단체가족,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

박승근 기자

현내면 초도항서 국토 대청결운동 전개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 ... 각종 오물 5톤 수거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회장 이진명)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현내면 초도항에서 회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 국토 대청결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청결운동은 환경오염예방과 저탄소 녹색생활화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내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청결운동에서는 초도항에 마구 버려진 폐어구 및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5톤 가량 수거됐다.

박승근 기자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현내면 초도항에서 회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 국토 대청결운동을 전개했다.